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음 1월 8일) 제3675호 대표전화(063)288-9700

▶▶ 매일 INDEX

5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덕진' 실현 총력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❶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방문길에 오른 김관영 도지사가 4일 오후, 군산시청 강당에서 문승우 도의회의장, 강임준 군산시장 및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꿈 2036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❷앞서 같은 날 오전, 김제시청 강당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도민들과 함께 '전북의 꿈 2036하계올림픽 유치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김제·군산시민 소통·공감 기회로'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김제·군산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주제로 민생 현장 찾아

김제서 백구 일반산단 조성 기반시설 정비 등 현안

군산에서는 군산항·새만금 신항 원포트 지정 등 논의

민생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도정의 답을 찾기 위해 시군 방문길에 오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김제시와 군산시를 방문했다.

지난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4일 두 번째·세번째 방문지로 각각 김제·군산을 찾은 김 지사는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지일관의 자세로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과의 소통기회를 마련했다.

오전 김제시청을 찾은 김 지사의 발걸음에 맞춰 김제시는 주요 현안과 실정을 알리기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제시의 업무보고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도지사는 현재 지역현안 등을 비롯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갖은 뒤 시청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도정철학을 공유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제시민들이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정비, △새만금 명승 탐방루트 개발 및 육성, △환경부 주관 자원순환의 날 행사 유치, △논콩산업거점지구 선도지구 지정 건의 등 김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후 지평선새마루를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단체장들과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김제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에 감사드리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김제시민과 함께 기원한다."며 "도지사와 김제시민들과의 소통·공감의 자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혁신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군산을 찾은 김 지사는 군산시의 역점·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분위기와 여론을 경청했다.

이후 시청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이라는 주제로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도민과의 대화에 지역 핵심 현안인, 군산항·군산새만금 신항 원포트(One-Port) 지정 관련 내용을 도에 건의했다.

질의자로 나선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은 "자문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원포트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결론을 낸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해수부 추가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와 공개할 계획이 있다면 공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지금 현재 새만금신항이 관할권 분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훗날 분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원포트, 투포트가 군산시와 김제시의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역항 지정을 위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시되면 시기에 맞춰 자문위원회에 결과를 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응답을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군산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던 이번 방문에서 많은 걸 배우고 간다."며, "민선 8기 3년 차에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군산=이재춘 기자

새로운 전주 관광 거점 문 열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

매주 화~일요일 이용 가능

4일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개관식이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1973년 땅굴형 방공호로 조성됐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전주시 완산동 완산벙커가 52년 만에 문화관광시설로 탈바꿈돼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다.

전주시는 4일 완산벙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장,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시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개관식을 가졌다.

완산동 용머리 풍물패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개관식은 사업 추진 경과보고, 개관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완산벙커는 복도에 여러 방이 연결된 개미굴 형태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적 가치를 가진 특성을 살려 '폐쇄된 완산벙커와 연결된 다중우주를 관광객이 탐험한다'는 주제로 LED와 거울을 활용한 '차원의 문' 등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10개의 콘텐츠룸과 무인카페, 기념품 판매점으로 구성됐다.

완산벙커는 전주시가 직영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입장료는 △성인(19세 이상)=1만원 △청소년(13세~18세)=8,000원 △어린이(4세~12세)=5,000원이며, 전주시민과 20인 이상 단체관람객은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시는 개관을 기념해 입장권 1매 구입시 동반 1명을 무료로 추가 입장시키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추가 입장은 구매한 입장권 금액과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시는 완산벙커가 문을 열면서 기존 전주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외연이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지나 전주천 너머 완산벙커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인 녹두관·파랑새관, 현재 조성중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등 구도심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하얼빈 동계AG D-3

전북 출신 7명 참past

8년만에 개최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전북에서는 7명의 선수가 출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펼쳐지는 겨울 대전인 동계아시안게임에 도내 출신 선수들도 출격한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은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8년만에 치러지는 것이며 도내에서는 바이애슬론 종목에 5명, 빙상 종목에 1명, 스키 종목에 1명 등 총 7명의 선수가 나선다.

먼저 바이애슬론은 최다 5명이 출전하는 데 주인공은 정민성(무주군청)과 고은정(전북체육회), 최윤아(전북체육회), 이현주(전북체육회), 최두진(포천시청)이다.

빙상은 정유나(한국체대), 스키에서는 최태희(단국대)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다.

/뉴시스